

걸림 없는 삶 추구...공의 실천적 개념



21 무심(無心) 무념(無念) 무사(無事)

일반적으로 세상사에 조금도 관심이 없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을 '무심(無心)'이라고 합니다. 반면 '유심(有心)'은 어디엔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사람들은 비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왠지 관심 밖에 있으면 소외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禪)에서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별로 달갑

게념이나 주의(主義)에 구애되지 않는 것, 그것이 선에서 말하는 무심입니다.

무심한 상태가 되자면 무엇보다도 마음에 번뇌가 없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 등 번뇌가 있다면 그것은 무심의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차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심의 상태가 아닙니다.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생각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마음에 든다면 그것은 무심이 아닙니다.

선어록에서는 종종 "만물에 무심하고 일체처(一切處) 일체사(一切事)에 무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대상(만물)과 어느 곳(일체처), 어떤 일(일체사)에 대해서도 무심해지라는 것입니다. 또 '무심위종(無心爲宗)'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심으로써 근본을 삼는다는 뜻인데, 모든 일에 마음이 구속되지 않는 무심한 경지를 말합니다. 현실적 정서적으로 마음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가 무심입니다.

'무사(無事)'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무 일이 없

든가 '일사(一事)'는 모두 다 번뇌 망념이나 집착하는 마음 등 중생적인 마음을 가리킵니다.

중국의 선승들은 '부처(佛)'나 '진리' 또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생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자성(無自性), 실체가 없다, 공(空) 등 인도 불교적 개념들을 모두 중국적 사유 아래에 '무심'·'무념'·'무사'·'무상(無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들을 현실적인 개념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특유의 격물치지(格物致知) 정신에 바탕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격물치지란 사물에 임각하여 앎을 확실히 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상이나 철학도 현실에 적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다' 또는 '어디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좋은 반면 때론 몸과 마음을 매우 피곤하게 합니다. 물론 좋은 일에는 마음을 써 주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굳이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다가나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것 등은 모두 자신의 정신을 피곤하게 합니다. 이것은 선(禪)의 무심은 고사하고 일반적인 무심도 안 된 상태입니다.

불교의 진리는 '무아'와 '공'입니다. 무심·무념·무사는 공의 실천적 개념입니다. 선에서 무심·무사란 일반적인 무심, 즉 멍하니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또는 건달처럼 목적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심은 모든 욕망과 번뇌로부터 이별하여 흔들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현실적 정신적으로 마음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무심 번뇌 망념이나 집착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 무사

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더 금물입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집착이고 집착은 결국 괴로움을 낳기 때문입니다.

어찌다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어 한두 번 보게 되면 우리는 계속 보아야 하는 중독증 같은 것이 생깁니다. 하다 못해 작은 화초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 늘 그 화초가 마음에 걸려 멀리 여행을 가지도 못합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면서도 스스로를 구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禪)에서는 무심(無心)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심(無心)'이란 관심의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번뇌심(無煩惱心)·무집착심(無執着心)·무망심(無妄心)의 준말로써, '번뇌 망념이 없는 마음' 집착함이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정신적으로도 그 어떤

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인 '별 볼 일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근심 걱정해야 할 일' '번뇌의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번뇌사'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혹 버스나 택시를 타면 '오늘도 무사하'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운행되기를 바라는 문구인데 사실 이 분들에게는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물론 내일도 모래도 무사히 보낸다면 일평생 행복한 나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사는 '마음속에 한 일도 없다'고 하는 '심중무일사(心中無一事)'와도 같은 말이고, '마음속에 한 물건도 없다'는 '심중무일물(心中無一物)', 그리고 '일 없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무사사귀인(無事是貴人)'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일물(一物)'이라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고집멸도 법문 억겁의 무명 밝혀

연화색

인도의 서쪽 아반티라는 나라 우제나라는 도시에 푸른 연꽃처럼 연약하고 매혹적인 연화색(蓮花色, 율팔라바나)이라는 미인이 있었다. 혼인할 나이가 되어 부모는 연화색을 결혼시키고 사위를 맞아 들였다. 얼마 후 그 젊은 부부 사이에는 딸이 생겼는데, 그때 바로 연화색의 아버지가 별안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느 날 남편을 잃은 그의 어머니는 사위와 물레 정을 통하고 말았다. 그 어머니와 남편의 이와 같은 불륜을 알고 분노와 슬픔을 금치 못한 그녀는 갓난아기를 방에 그대로 둔 채 집을 나와 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먼 길을 걸어 베네레스 성에 도달하였다. 그때 이 성에는 상처(喪妻)를 한 한 장자가 있었다. 그때 마침 그는 성문 밖에 홀로 서 있는 연화색을 보았다. 장자는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이 흘러 마차를 세우고 청혼하였다. 그녀가 그 뜻을 수락하자, 장자는 여인을 마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로 삼았다.

얼마간의 세월이 흘러, 장자는 큰 돈을 모았다. 그는 장사를 위해 우제니로 가야 할 일이 생겼다. 거기서 장자는 우연히 처녀들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명절을 맞아 떠돌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그 중에는 연화색이 낱은 딸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를 잃은 그 미모에 장자는 크게 마음이 동해 그 처녀의 아버지를 만나 수만금을 주고 그 딸을 데려와 아내로 맞았다.

어느 날, 연화색은 둘째 부인의 머리를 빗어주다가, 그녀가 바로 자기 딸임을 알고 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한 때는 어머니와 남편을 같이 했는데, 지금은 또 딸과 남편을 같이하게 되다니, 이 무슨 죄악일까?" 그녀는 다시 집을 나가 거리를 방황하였다.

베네레스 성문을 나서서 울며 울며 가다가 도달한 곳이 라자가하(王舍城)였다. 거기에 온지 며칠 안 되는 동안, 그녀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성 안의 노름꾼들 사이에 자자하였다. 오백 명의 노름꾼들이 오백금을 그녀에게 주고 같이 꽃밭으로 가서 거기서 놀았다. 그때 마침 목련존자가 그 동산 안에서 산책하고

있었다. 노름꾼 중의 한 사람이 "너, 저 존자에게 가서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느냐?"하고 말했다. 그녀는 "내 옛날에 수많은 남자의 마음을 녹였다. 어찌서 저런 사람쯤 녹이지 못하겠느냐?"하고 대답했다. 그녀는 가진 교태를 다 부렸으나 목련존자의 마음은 숲과 같이 조금도 동요함이 없었다.

그 때 목련존자가 여인을 보고 말했다, "여인이여, 깊이 스스로 반성하라. 네 몸은 미워해야 할 것으로 가득하다. 내가 만일 네 몸의 부정(不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마치 여름철의 번소와 같이 사람들은 너를 버리고 멀리 가버릴 것이다." 연화색은 자신의 부정을 깨닫고 이렇게 대답했다. "원하옵건대, 저는 가르침에 따라 출가하고 마음을 바로잡아 도(道)를 닦겠습니다."

목련존자는 이를 불쌍히 여겨 부처님께 데리고 가 출가하도록 했다. 출가 후 그녀는 등·불·까시나(kasina: 대상에 대한 집중)로 마음공부를 하였다. 오래지 않아 그녀는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결국 아라한과를 얻었다.

연화색 비구니가 과거를 꿰뚫어보는 속명통의 지혜를 얻어 과거를 관찰해보니, 항상 지옥에 드나들어 빠져나올 기약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왕사성의 여인들에게 "다만 출가만 하면 설사 과거 해서 지옥에 들어갈지라도 마친다는 해탈할 때가 있다"고 출가를 권했다. <연화색비구니경> <법구경> <사분율> 등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연화색 비구니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 것은 탐진치 삼독의 불을 끄고 보시행을 강조하는 법문이었다.

"지혜를 어지럽히는 것은 야심과 욕심이나 마음에 탐욕의 불길을 꺼야 하느니라. 소유욕을 비워야 하느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삼보를 공경하며 노력과 재물과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보시하라. 그대로 마음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때 앞에는 평화와 우애와 행복의 큰 길이 열리리라."

이어서 부처님께서 고집멸도(苦集滅道) 4성제 법문으로 그녀의 몸과 마음을 맑고히 씻어주고 억겁의 무명을 일순간에 광명으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김성우 기자

생활 法文

어려움은 나를 가르치는 공부 초발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그 때, 그 마음을 보자.

연일 계속되는 불안정한 사회현상들이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미국 쇠고기 수입, 흉악범죄, 중국 지진 등 이러한 악재들로 인해 서로가 힘들어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면서 점점 불신과 어려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위 현상문제도 그렇거나와 부처님들 가정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佛家에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괴로움을 경계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어려운 경계란 자기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이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그냥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려움은 밖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가 난 나를 등글고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 다가오는 시험인 것이니, 경계를 너와 나,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있기에 모두가 있으므로 그 모든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가 있을 때는 동요하지 말고 침착해야 합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살펴 본 후 판단해야 합니다.

어려움은 곧 나를 가르치려는 공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가르치는 공부라는 것을 알고자면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의 어려운 모습이 과거 내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결과이니 당연히 긍정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내 밝은 본 모습을 찾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공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들의 당면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배우자 문제, 직장 문제, 자식교육 문제 등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어려움으로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에 대응해서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들면서 돌아갑니다.

우리 일상이 그렇게 돌아가니 어느 때문인가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먼저 어려움이 생겼다면 한 순간 접어두고 내 본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내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하는 서원을 세웠을 그때,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 처음 각오를 다지던 그때, 자식을 낳아 감격하던 그때, 그 마음을 되새겨 봅시다.

초발심시변정자(初發心時便正覺) 처음에 세운 마음이 정각을 이룬 것과 같다!이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답이 있는데 왜 고민해야 할까.. 처음 그때, 그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내 관계들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부터라도 첫 부부가 되었을 때, 첫 부모가 되었을 때, 첫 직장인이 되었을 때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어려움은 우리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스승이며 공부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서는 일찍이 이러한 답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제 열심히 따라가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일요법외 법문 내용 정리
[미륵암 청운 011-870-0021]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캠페인 PR]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쁨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청사 주지 예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로 297-4 대청사
전화 | 043)732-5560 /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메일 | cafe.daum.net/dasungsa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졸	공무원	서울
임우우	1966년생	174	고졸	자영업	청주
노해운	1972년생	173	고졸	CEO	충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졸	회사원	대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졸	알앤디	구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졸	공무원	서천
김기연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울
홍명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도양
최영길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시흥
오성택	1965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졸	회사원	부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졸	회사원	전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졸	회사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졸	회사원	대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졸	회사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무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졸	회사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졸	자영업	인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졸	회사원	수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졸	금융직	서울
김중희	1963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중구	1972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영상	1970년생	170	방통대졸	공무원	서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졸	회사원	서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이영근	1965년생	174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졸	학원장	광주광역시